

‘고전’과 ‘골동’을 겸한 헌책들

읽으면 더욱 즐겁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서정인

소설가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좌판을 벌이고 책을 파는 것을 더러 볼 수 있다. 헌책을 파는 일은 거의 없고, 대개 새책이다.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면, 그 책들은 길거리에서 떨리로 팔기 위해서 찍어낸 듯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헌책은 교과서 말고는 책방에서도 구경하기가 어렵다. 제본이 허술해서 대물림하기 전에 책이 떨어지는 탓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책이 너무 쉽게 쏟아져나와서 흔하기 때문일 것이다. 새책도 다 소화 못하고 폐기처분하는데 언제 헌책을 건사하라.

새책을 버리면서 헌책을 간수하려면 좋은 책 나쁜 책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가치판단은 머리를 굴려야하는 문화활동이다. 그것은 소비, 향락, 사치, 퇴폐와 같은 편의와 안락에 길들여진 마비된 머리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부담이다. 바보상자로 대표되는 영상매체는 사람의 혼을 잠재우는 최면의 재주를 가졌다. 그것은 인쇄매체의 칼날같이 날카로운 인식의 모서리를 지우고 잊고 마침내는 대신한다. 사람들은 판단능력을 잃고, 무비판과 혼수를 판단으로 착각한다. 백치는 스스로를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백치가 백치로 보이면 백치가 아니다. 백치는 백치인 줄 몰라서 백치다.

고서(古書)는 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헌책과 다를 것이다. 조선조 때 한적(漢籍)이나 한글책이 증가에서 종종 발굴(몇 백년 만에 발견된 것)이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된 것이 보도된다. 이 때 그 옛책의 가치는 전혀 그것의 희귀성에 있을 것이다. 만일 고려 때 책이 지금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일연(一然)스님의 지은 바가 아니고 국자감 서적포의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오래되고 드문 것만으로 보물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책이 너무 많아서 좋은 책이 책더미 속에 깔려서 숨이 막히는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책이 원래 귀했다. 필사본 수사본으로 나눠 보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인쇄술이 발달된 뒤에도 오늘날같은 대량출판의 책공해는 없었을 것이다. 책은 귀했을 뿐만 아니라 요즘보다 훨씬 더 살아남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에도 정치적 이유로, 즉 권력자의 폭력으로, 책을 금하는 야만적이고 어리석은

행패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옛날은 요즘보다 더 어리석고 난폭했음이 분명하다. 진시황의 갱유분서는 그 미련한 폭력의 중국적, 동양적 한 표본일 것이다.

서양의 문예부흥은 중세 천년에 일실된 희랍 로마의 고전들을 되살리는 운동이었다. 종교적 폭력이 정치적 폭력보다 더

고전은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경우이고, 골동은 세월의 풍상을 겪은 경우이다. 헌책은 무형문화재인 고전보다는 유형문화재인 골동에 가까울 것이다. 오래된 책들 중 고전은 문학사자들이, 고서는 출판인들이 만드는 것 같다. 어쨌든, 고전과 골동을 겸한 고서들과 함께 기거하는 일은 즐겁다.

가공스러웠던 모양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뒷 절반이 없다. 그는 비극론과 희극론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려진 「시학」에는 비극 이야기뿐이다. 그의 책에는 그에겐 알려졌고 우리들에게는 전해 오지 않는 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희랍 삼대 비극시인들은 삼백 여편의 비극들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남은 것은 서른두 편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로마사람 호레이스에 이어서 고전문예비평의 마지막 주자인 희랍사람은 이름이 롱자이누스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고 일 세기경의 사람인지 삼 세기경의 사람인지도 분명치 않을 정도로 그에 관한 기록들이 인멸되어 버렸고, 그의 소작으로 추정되는 「송고함에 관하여」도 책 중간 중간에 두 쪽, 여섯 쪽, 두 쪽, 두 쪽, 네 쪽, 두 쪽이 이빠지듯 빠지고, 마지막은 몇장인지 알 수 없는 쪽들이 사라진 채 끝이 났다.

누가 혹시 희랍이나 이태리, 또는 에짚트의 아렉산드리아나 터키의 이스탄불(옛 콘스탄티노폴리스)을 여행하다가 오래된 헌책점이나 벼룩시장에서 없어진 시학 후편이나 희랍 비극이나 온전한 송고론의

필사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책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서구 문학사는 그 사람의 업적을 도입하고 다시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개인이나 인류를 위해서 보람있는 일이 분명하지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원래 몇 권 안 되었을 그 책들이 이미 천년 이천년 전에 가령,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무심코 불쏘시개나 뒷씻개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면, 옛날 희랍 로마의 전판도의 흠을 탄소측정해도 소용없고,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는 데에 동원된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찾아도 허사일 것이다.

중세 기독교 교부들은 종교적, 도덕적 두 가지 이유들에서 고전을 배척했다. 종교적으로, 예수 태어나기 전에 세세 받지 않고 죽은 고전 작가들은 아무리 선량해도, 단테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지옥 제일 원(圓)에 갔고, 도덕적으로, 그들의 작품들은 이단(異端)답게 불량하고 음란해서 사람들을 타락시켰다. 초기교부들은 희극이건 비극이건 연극을 금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람의 모방본능, 모방된 것을 즐기는 본능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그들은 결국 연극의 탁월한 심리적 효과를 선교에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교회 뒷뜰에다가 무대를 설치했다. 연극은 예수와 성인들의 생애를 다룬 기적극, 권선징악의 도덕극으로 차츰 되살아났다. 그것은 그들이 프라톤의 철학을 취하자니 이단이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그것을 우의적(寓意的)으로 해석하여 신 프라톤주의로 받아들인 것과 비슷하다.

미국의 한 대학원 학생은 「다스 카피탈」을, 독일어가 어려워져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통에 버렸다. 만일 우리나라 사회학도들이 그 책을 신주 모시듯 한 적이 있다면, 당국의 무지막지한 탄압 검열의 금지조치가 그 책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공산당 선언이 노튼 영문학 선집에 나온다. 그것이 찢기거나 먹칠이 되지 않고 통관된 것을 보면 아마 당국이 몰랐던 모양이다. 그것이 훼손되었더라면 독자들의 관심을 더 끌었을 것이다. 지하 출판된 광주학살 이야기 책을 알음알음으로 구해서 읽을 때의 흥분과 전율은 일부 당국의 덕분이었다.

새뮤엘 존슨이라는 영국의 심철 세기

문학자는 섹스피어가 죽은 지 백년이 지났으니 그의 가치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문학작품이 살아남는 것을 측정하는 기간으로 일 세기를 잡았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서양작품은 호머의 두 서사시들이다. 그것들은 거의 삼천 년이 되었다. 너무 오래되어 현대적 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어떤 작가는 그것들이 비기독교적 전쟁 살육 작품이라고 그것들을 비난 반대했다. 반대로 불란서 사람 페기는 “호머는 오늘 아침 새롭다. 어떤 것도 오늘날신문 보다 더 낡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뒤엎 사람의 생각에 동감이다. 태양은 오래되었지만 날로 새롭다.

그 때 유행하는 소설을 안 읽었다는 늙은 교수의 대답에 젊은 학생이 그 책이 나온 지 여섯 달이 되었다고 하자, 교수의 단테의 「신곡」을 아직 안 읽었다는 학생에게 그 책은 나온 지 육백 년이 되었다고 했다 한다. 오래 되어도 새로운 책이 있고, 새로워도 낡은 책이 있다. 고전이란 시간의 시험과 시련으로 걸러진 명작이다. 백년 정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지를 짜내서 판단했으면 그 가치는 믿을 만할 것이다. 그 정도의 장고(長考)면 실속없이 솟아오른 타작을 끌어내리고 부당하게 가라앉은 걸작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오래 되어서 좋다는 말은 오랜 세월 그냥 묵혔다는 말도 되고 시간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도 된다. 시간의 심판은 역사의 재판이고, 역사의 재판은 많은 사람들의 판단들이 모여서 도달한 결론이다. 그냥 세월만 흘러가면 문헌 옥이 빛날 리 없고, 위장한 쓰레기가 제 모습을 드러낼 리 없다. 개꼬리 삼년 묵혔도 황도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은 대개 몇 사람들, 때로는 한 사람의 뛰어난 식견에 의해서 시작되고 지배되는 수가 많다. 십구 세기 영국의 시인 핏저랄드가 십이 세기 페르샤의 시인 오마 카이얌의 녀출시들을 번역한 시집은 로셋티라는 시인이 헌책방에서 떨리로 팔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까지는 세상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후 그것은 판을 거듭해서 출판되었고 백일련(聯)들로 된 그 사행시(四行詩)들은 영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래 묵혔다는 말은 단순히 세월의 모진 풍상을 겪었다는 말이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들어있지 않다. 물건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좋아하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환경이 달라졌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위가 다 바뀌었는데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가치일 것이다. 격변의 시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고전(古典)은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경우이고, 골동(骨董)은 세월의 풍상을 겪은 경우이다. 유치원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혈거원시인의 동굴벽화가 값진 것은 변한 세상에 본래 형상을 간직했기 때문이다. 오래 되어 세상이 많이 변했을수록, 그리고 원형보존이 잘 되었을수록, 그 벽화는 더 귀중할 것이다. 몇백만 년 전 서식했던 멸종동물의 발톱자국 화석도 대개 그런 식으로 값이 나갈 것이고, 우리들의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장롱이나 경대도 마찬가지이다.

헌책은 그들 중 어디에 속할까? 아무래도 후자일 듯하다. 고전은 무형문화재여서 외형에 별 관심이 없고, 골동은 유형문화재라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호머나 단테는 오늘 짝어내도 호머나 단테지만, 원시벽화는 모사품은 가치가 없다. 조선왕조 실록의 원본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국보일텐데, 그것의 가치는 영인본에 의해서 대신될 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 즉 고전적 가치 보다는 강화사고(史庫) 전주사고를 전전하면서 왜란과 호란의 병화를 피하고 살아남은 그것의 물건으로서의 기구하고 끈질긴 운명 때문에 생기는 골동적 가치일

것이다.

오래된 책들 중에서 고전(古典)은 문학사가들이 만들지만, 고서(古書)는 출판인들이 만드는 것 같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된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몇 년쯤이면 고서가 될까? 천년 묵었으면 무가치한 문서도 진품이고, 고전적 가치가 있으면 십년으로도 고서가 되겠지만, 대략 존슨의 백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구한말 이전의 전적(典籍)이라면 고서라고 할만 하지 않을까.

나의 서가에 세기말(世紀末) 직전의 책들이 몇 권 있다. 물론 전부 헌책이다. 그것들은 고전적 가치도 충분한 것들이다. 셸리의 시집은 런던에서 1900년에, 소포크레스의 안티고네 영역판은 보스턴에서 1899년에, 버질의 전원시 영역판도 포트랜드에서

1899년에, 시저의 골 전쟁 논평 첫 판권의 영역판은 뉴욕에서 1896년에, 브라이언트의 시집은 뉴욕에서 1894년에, 듀마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 영역판도 보스턴에서 1894년에, 로마 시인 카투루스의 영역시집은 보스턴에서 1893년에, 듀마의 삼총사 영역판도 보스턴에서 1893년에, 매슈 아놀드의 비평론 두 권은 런던에서 1891년에, 색커리의 소설전집 스물두권은 보스턴에서 1889년에, 라임니찌의 인간이해론 영역판은 시카고에서 1888년에, 로셋티의 시집은 하나는 보스턴에서 1887년에, 또 하나는 뉴욕에서 1886년에, 쉘리의 생애 영역판은 런던에서 1883년에, 셸리의 버질론도 옥스포드에서 1883년에, 에드먼드 스펜서의 시전집은 런던에서 1879년에, 히포리트 테인의 영문학사 영역판도 뉴욕에서 1879년에, 버질의 전원시와 농업시 영역판은 뉴욕에서 1877년에, 단테의 신곡 독일어판은 라이프치히에서 1876년에, 유리피데스의 비극 영역판은 뉴욕에서 일권은 1875년에, 이권은 1863년에, 푸르타크의 도덕론 영역판 일권은 보스턴에서 1871년에, 오권은 1878년에, 존 드라이든의 시집은 런던에서 1867년에, 에픽테투스의 작품집 영역판은 보스턴에서 1865년에, 테니슨의 시집은 보스턴에서 1851년에, 스콧트의 역사소설 전집 스물한권은 보스턴에서 1831년, 1832년, 뉴욕에서 1885년에 출판되었다.

이 밖에 출판연대가 명시되지 않은 카라일의 불란서혁명, 과거와 현재, 램의 에리아 수필집, 디 퀴시의 영국 아편쟁이 고백이 있는데 이들도 십구세기 책들로 추정된다. 나는 이 고서들을 전부 이십년 전 보스턴의 헌책방들에서 샀다. 비싸게는 일, 이 불, 싸게는 일, 이십 전을 주고 샀다. 강당같은 데에 헌책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첫날에는 일 불, 다음 날에는 오십 전, 그 다음날에는 이십오 전, 또 그 다음 날에는 십 전을 받다가, 마지막 날에는 무료로 주는 책처분 저자도 있었다. 나는 이 고전과 골동을 겸한 고서들과 같이 기거하는 것이 즐겁다. 그것들을 읽으면 더욱 즐겁고.

